“대행 선사 주인공 관법, 지관 수행 新정립한 현대 생활선”

윤종갑 초빙교수,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서 주장

대행 선사 주창 ‘主人空 관법’
‘믿음–놓음–지켜봄–나툼’ 구조
주인공 믿고 관하며 실상 깨쳐
五空사상 바탕 실천행도 강조
“초기 지관–대승보살도 계승해”
中 · 日 · 초기불교 지관 조명도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진행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관(止觀)’ 수행은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 수행의 핵심원리로 작용해 왔다. 이는 붓다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그에 의해 깨달음을 성취한 수행 구조를 의미해 어떠한 수행체계가 불교의 정통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도 하다.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수행체계를 지관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초빙교수는 6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행선의 지관 수행과 마음공부’를 통해 대행 선사가 전한 수행법인 주인공 관법과 붓다의 수행법인 지관 수행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止)는 “마음의 산란을 멈추고 집중 상태로 이끄는 수행”이며 관(觀)은 “(지의) 기반 위에서 법의 실상을 통찰하는 수행”으로, 초기불교 경전에는 지(선정)와 관(지혜)을 함께 닦음으로써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윤 교수는 “지와 관은 서로 대립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닌 상보적인 것으로 함께 닦을 때 도를 인식해 삼독의 족쇄를 제거하고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며 “지를 닦아 익혀 관을 성취하고 관을 닦아 익혀 다시 지를 성취하는 지관겸수(止觀兼修)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초빙교수가 6월 14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에서 ‘대행선의 지관 수행과 마음공부’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主人空) 관법과 지관의 수행 구조가 일치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대행선은 “나의 마음을 주인공에 놓고, 주인공의 눈으로 지켜보는 주인공 관법”임을 강조한 윤 교수는 “대행 선사가 제시한 수행법은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은 채 오로지 지켜보는’ 지관 수행”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강조하는 ‘지켜봄의 수행’은 전통 위빠사나 수행 그대로”라며 “위빠사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대념처경〉, 〈청정도론〉에서는 붓다의 수행법으로 사념처를 주관적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행 선사는 이 수행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수행 이후 자비와 보살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승불교의 전통도 계승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주인공 관법의 마음공부가 ‘믿음-놓음(止)-지켜봄(觀)-나툼’의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명징하게 확인된다.

윤 교수는 “지관을 바탕으로 처음 단계에 믿음이 추가되고 마지막 단계의 나툼에서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이 행해진다. 특히 나툼은 대행 선사만의 독창적 수행 단계로 선사가 강조하는 ‘오공(五共)’의 실천으로 구체화된다”며 “이는 지관을 통한 수행이 깨달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대행 선사의 대승보살도 원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초기불교의 지관 수행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정립한 생활선으로서 붓다의 정통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구축한 가장 충실한 계승자로 평가돼야 한다”며 “대행선의 주인공 관법은 붓다의 수행을 현대적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수행체계이며 이는 불교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명상의 실용성과 윤리성을 모두 포괄하는 수행법”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의 지관, 그리고 마음공부-불교 수행의 현대적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관론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원영상 원광대 일본어교육학과 교수가 ‘일본불교의 지관 수행 전개와 활용’을,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대적 활용 재고’를,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중국 화엄불교의 지관론과 그 의의’를,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과 그 활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7회 묘공학술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와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에게 우수상이 수여됐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전달됐다.

제7회 묘공학술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이상을 수학하고 있는 출·재가자 9명(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이상 7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묘공학술장학금은 1년간 지원되며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학기당 150만원, 박사과정 이상 학생에게는 학기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동국대서 禪 기반 ‘응용명상’ 체험해볼까

종학硏 응용명상 강좌 진행
교내 선센터서 9월 7일까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일환으로

한국불교 전통 선(禪) 명상법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6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선(명상)센터 응용명상 체험’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명상의 실제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통 선 수행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응용명상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내면의 평화와 통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사전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본행사는 9월 25일 개막할 예정이다.



이번 응용명상 체험프로그램은 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안내하는 10여 개의 명상 세션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고려해 설계됐다.

서암 스님은 ‘쉼, 다시 나에게로’라는 주제로 응용간화선 체험을 제공하며, 브라이언 소머스(Brian Somers) 교수는 ‘외국인을 위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한다. 황미향 교수는 ‘맑은 쉼, 소리명상’ 세션을 통해 진동 주파수 소리명상을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원상 스님은 ‘마음속, 울림명상’을 통해 치유하는 소리(울림) 명상을 진행한다.

은산 스님은 ‘안녕, 내 마음-AI와 함께하는 일주일 아침명상’이라는 주제로 호흡명상과 자애명상, 몸 인식 이완명상 등 다양한 심신치유 명상을 진행하며, 문일수 교수는 ‘일상 속 알아차림(sati)명상’ 체험을 진행한다. 고정혜 교수는 ‘K-선명상, 화두로 로그인-무심 체험’ 세션으로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한다.

응용명상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 및 QR코드 사전 등록으로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강좌는 K-명상의 활성화 기여를 위해 무료로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스승 5명, 종암경찰서 경승 위촉

6월 13일 위촉식 개최
경승실장엔 법운 정사

서울 종암경찰서(서장 류경숙 총경)는 6월 13일 경승 위촉식을 열고 진각종 총무부장 법운 정사(탑주심인당 주교)를 경승실장으로, 포교부장 원영 정사(관음심인당 주교), 기획실 미디어국장 보당 정사(명선심인당 주교), 기획실 사서국장 도원 정사(밀엄심인당 주교), 포교부 포교국장 일연 정사(창원심인당 주교) 등 4명을 경승으로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일연 정사, 원영 정사, 법운 정사, 류경숙 서울종암경찰서장, 도원 정사, 보당 정사.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직원 불자회인 법우회 활동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늘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승실장 법운 정사는 “준비를 잘해서 경승실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승 활동을 하면서 법우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중일 기자

저스트비 홍대선원 도반 돼 보세요

홍대선원 도반 4기 모집

JustBe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수행 커뮤니티 도반 4기를 모집한다.

도반 4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마지막 주는 오후 6시~8시) 홍대선원 5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도반 4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부처님 길을 걷고 있는 스님들이 함께한다. 헝가리 출신 원오 스님은 2002년 숭산 스님 인연으로 출가해 정진하고 있으며, 일본 출신 법여 스님은 멕시코와 미국, 홍콩,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리트릿(Retreat) 수행을 했다. 준한 스님은 2006년 출가해 해인사 강원과 율원을 졸업하고 홍대선원을 창건했다.

주지 준한 스님은 “생활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대선원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희망자는 링크트리 구글폼 작성 후 농협 301-0322-3520-11(저스티비 JustBe)로 입금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원. 010-5708-2423

임은호 기자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9월10일~9월15일
인천-남경-구화산-항주-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9월11일 출발~9월20일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장액 대불사-칠채산-가욕관-돈황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일정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